

머리로 발로 2골 ... 손흥민 “내가 해결사”



“이녀석 이빠죽겠네” 22일 호주 멜버른 레벡클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손흥민이 연장 후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그라운드에 쓰러져 차두리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장 전후반 14분 각각 1골... 우즈베키에 혈투 끝 2-0 승

4경기 무실점 연승... 이란-이라크전 승자와 26일 준결승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이 골 갈증을 해소하며 아시안컵 4강행을 이끌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0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이 연장 전반 14분 머리로, 굳게 잡혀있던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뚫었다. 연장 후반 14분에는 시원한 원발 슈팅으로 다시 한 번 골 맛을 보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날 슈틸리케 감독은 이정협(상주 상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운 4-2-3-1 포메이션으로 우즈베키스탄 골막에 나섰다. 손흥민과 이근호(엘 자이시)가 양쪽 측면에 서고, 남태희(레퀴아)가 처진 스트라이커로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겨냥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의 기세가 매서웠다. 전반 4분 사르도르 라시도프의 오른발 슈팅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의 첫 슈팅은 전반 20분이 넘어서야 나왔다.

이정협의 원발로 간신히 첫 슈팅을 기록한 한국은 이후 점차 공세를 높이며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하지만 골 결정력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이근호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손흥민과 기성용의 위력적인 슈팅도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남태희의 발이 기성용의 킥 패스를 허무하게 지나치면서 땅을 치기도 했다. 후반에도 골망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격수들의 2% 부족한 결정력 탓에 양팀 모두 헛심 공방을 벌였고, 승부는 연장까지 이어졌다. 연장 전반 14분 마침내 기다리던 골이 나왔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가로챈 김진수(호펜하임)가 문전으로 패스를 했고, 손흥민이 몸을 날려 헤딩슛을 시도했다. 상대 골키퍼 이그나티 네스테로프를 맞고 흐른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경같은 선제골이 됐다.

연장 후반 14분에도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 오른쪽 측면을 뚫은 차두리(FC 서울)가 문전에 있던 손흥민 앞으로 공을 보냈고, 오른발로 한번 공을 터치한 손흥민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슈팅을 날렸다. 손흥민의 발 끝을 떠난 공은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한국의 4강행을 알렸다. 이후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을 앞세워 실점 없이 골대를 지킨 한국은 2-0 승리를 완성하며 이번 대회 네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천신만고 끝에 4강 고지에 오른 한국은 오는 26일 호주 시드니로 이동해 결승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준결승 상대는 이란-이라크의 승자다. 대회의 마지막 결승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심판도 승강제 실적따라 배정 심판 전담제 도입

K리그 심판들도 실력에 따라 강등과 승격이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올 시즌 심판 전담제와 승강제 등 무한경쟁 체제를 도입해 K리그 판정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심판 전담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연맹과의 계약을 통해 46명으로 운영했던 전임제를 전담제로 바꿔, 1급 심판 자격증을 가진 70명으로 심판 인력풀을 넓혔다. 심판풀 확대도 배정 가능 인원이 늘어나면서 시즌 중 심판 승강제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심판 배정 투명성 강화 ▲심판 신상필벌 강화 ▲심판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심판 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심판을 자동화하여 배정한다. 또 거점 숙소제 운영으로 심판 배정 비공개 제도를 강화한다. 심판진은 3~4개 권역으로 경기 1일 전 거점 숙소에 모인 뒤, 경기 당일 배정지를 통보 받아 이동하게 된다. 주심과 1부심, 2부심, 대기심의 배정은 킥오프 90분 전에 발표된다.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된다. 승강제 운영을 위해 심판 판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보완한다. 경기 후 심판판정 동영상 분석에 구단 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오심 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계적인 심판 교육도 이뤄진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KFA 탑 레프리 코스를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연 3회 체력 테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각 심판에게 경기 동영상 분석과 함께 경기 영상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동영상 원격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판정 통일성도 유도한다. 이외에도 연맹은 미디어 및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판 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Talk about Referee’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판정 정확도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콩고, 23년만에 8강의 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가봉에 1-0 승

5년 만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 진출한 콩고가 무려 41년 만에 조별리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23년 만의 8강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인 콩고는 22일 적도기니 바타의 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봉(62위)과의 201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3분 터진 프리스 오니앙게(랭스)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콩고는 후반 3분 코너킥 상황에서 가봉 수비수가 어실하게 헤딩으로 거둬낸 볼을 오니앙게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귀중한 승리를 쟁

겼다. 1승1무(승점 4)로 A조 선두로 나선 콩고는 오는 27일 부르키나파소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조 선두로 나선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이날 승리가 콩고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 무대에서 무려 41년 만에 따낸 것이라는 점이다. 콩고의 다음 목표는 8강 진출이다. 콩고는 1992년 대회 조별리그에서 2무로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콩고가 부르키나파소와의 최종전 고비를 넘어 8강에 오르면 23년 만의 8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완수하게 된다. /연합뉴스